

김기덕의 몰락...외신들도 “미투 중 가장 쇼킹”

여배우 3명 'PD수첩'서 성폭력 폭로

2000년대 초반부터 피해 사례 증언
변호사 “방송된 내용은 빙산의 일각”
할리우드리포트, 피해자들 증언 보도

영화감독 김기덕의 허상이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자신의 영화에 참여한 여배우들을 상대로 저지른 추악한 성폭력이 낱알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뜨겁다.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추앙받던 그의 몰락은 물론 법의 심판대에 서야할 처지가 됐다.

지난해 여배우 A로부터 영화 '외비우스' 촬영 현장에서 폭행과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된 김기덕 감독은 그해 말 법원으로부터 폭행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성폭력 부분에서는 범법을 빠져나간 감독은 2월 열린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영화의 폭력적이라고 해서 내 삶이 그렇진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가 2000년대 초반부터 여배우들을



함께 작업한 여배우에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기덕 감독(왼쪽)과 배우 조재현. 이들의 행태에 분노 섞인 비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013년 합작한 영화 '외비우스' 시사회 모습. 사진제공 | 김기덕필름

상대로 가한 성폭력이 6일 방송한 MBC 'PD수첩'을 통해 구체적인 증언으로 폭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감독과 함께 작업한 여배우 3명이 출연해 영화에 참여하기 전, 또 촬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당한 성폭력 피해 사례를 상세하게 털어냈기 때문이다.

여배우들의 폭로내용은 충격을 넘어 경악과 분노를 일으키기 충분했다. 영화 촬영 도중 감독은 물론 당시 주연배우인 조재현에게도 성폭

행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여배우 B는 “(연기자)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처절하게 짓밟혔는데 가해자들은 성공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고소했다.

외신도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할리우드리포트는 7일 '김기덕 감독 성폭력 혐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련의 '미투' 운동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썼다. 피해자들의 고백까지 구체적으로 담았다.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PD수첩'이 담은 내용은 피해 사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추가 의견도 나왔다.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을 처음 세상에 알린 여배우 A의 법률대리인인 이명숙 변호사는 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PD수첩' 내용은 가장 수위가 낮은 이야기”라며 “더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배우 A는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구체적인 추가 증언들이 나왔고, 거스를 수 없는 '미투' 운동의 흐름과 맞물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김기덕 감독은 더 이상 영화 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파노라마 부문에 초청된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개봉 여부도 불투명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7일 현재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수십 건 올라왔다.

이해리 기자 gofi1024@donga.com

숫자뉴스

63위 방탄소년단 제이홉의 믹스테이프 '호프 월드'의 빌보드200 순위. 7일 발표된 빌보드 최신차트에 따르면 '호프 월드'는 메인차트인 빌보드200에서 63위에 올랐다. 이는 한국 솔로가수로는 최고기록이다.

#해시태그 킷



바다의 러블리한 '봄 신상해어'

가수 바다가 봄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는 “봄 신상해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하며 달라진 헤어스타일을 선보였다. 그동안 단발로 긴 겨울을 보냈던 그는 가볍게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굵은 웨이브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드는지 그의 표정에도 밝은 기운이 물씬 드러난다. 팬들은 “어서 빨리 무대에서 봤으면 좋겠다”며 바다의 변신을 기대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스포츠동아 #바다 #봄맞이 #헤어스타일변신

알쓸연잡 <알아두면 쓸데있는 연예 잡학사전>



SBS '착한 마녀전'

1인2역...오직 CG로만? 촬영 바쁠 땐 대역 활용

연기자 이다해는 현재 방송 중인 SBS '착한 마녀전'에서 1인2역을 연기하고 있다. 22일 방송하는 SBS '스위치-세상을 바꿨다'의 장근석과 KBS 2TV가 하반기 방송하는 '너도 인간이니?'의 서강준도 두 인물을 동시에 연기한다. 촬영기법과 편집기술의 발전으로 요즘 1인2역은 TV화면에서 상당히 자연스럽게 비춰진다. 하지만 모든 장면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처리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에 대역을 적절히 활용하며 촬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다해는 극중 평범한 주부와 화려한 승무원으로 각각 출연한다. 의상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등으로 두 캐릭터의 특징을 달리 표현하고 있지만, 이야기 전개상 두 캐릭터가 함께 등장할 때는 CG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두 캐릭터의 상반신이 함께 드러나거나 얼굴이 동시에 화면에 클로즈업될 때는 반드시 2번의 촬영을 거쳐야 한다. 평범한 주부의 모습으로 한 차례 찍고, 화려한 승무원의 차림으로 촬영을 마치면 편집실에서 CG로 두 영상을 하나로 만든다. 판타지 장르물이나 일기예보 영상에서 흔히 쓰이는 크로마키 기법을 이용해 파랑색 배경을 뒤로 하고 촬영한 다음, 파란 배경에 필요한 영상을 입히기도 한다.

하지만 2번의 촬영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역도 활용한다. 한 인물의 얼굴만 크게 보이고 다른 인물은 멀리서 잡는 카메라 구도, 뒷모습이나 어깨만 걸쳐서 찍는 경우에는 대역을 쓴다. 대역은 해당 인물과 체형, 외모, 분위기가 흡사해 멀리서 보았을 때 동일한 사람으로 착각할 만한 인물을 미리 섭외해둔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장근석은 사기꾼과 검사, 서강준은 인간과 로봇을 각각 연기한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박신혜-최태준 '선후배에서 연인으로'

중앙대 선후배서 작년 말 열에 시작
친구·부모에게도 소개 '두터운 애정'

배우 박신혜(28)와 최태준(27)이 열애 중이다.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연기자로 데뷔한 후 친구처럼 지내오다 지난해부터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7일 두 사람의 각기 소속사는 “친구사이였다가 지난해 말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사람이 연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연예계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다.

지난해 5월 두 사람의 열애설이 한 차례 제기됐을 당시 소속사 측은 “학교 선후배 사이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둘이 연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여서 서로를 위해 부인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 두터워졌고, 또래 연에게 친구들에게도 서로를 연인으로 소개하는 사이가 됐다. 또 20대 청춘스타답게 박신혜가 자신의 부모에게도 최태준을 남자친구로 소개할 정도로 믿음이 커진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이날 두 사람이 다정하게 데이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최태준의 한 측근은 7일 “두 사람의 성격이 비슷하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해 주위에 친구들도 많다”며 “취미도 같고 공통점이 많아 이야기가 잘 통하는 친구”라고 말했다.

박신혜는 2003년 이승환의 ‘꽃’ 뮤직비디오로 데뷔해 드라마 ‘상속자들’, ‘피노키오’, ‘닥터스’, 영화 ‘7번방의 선물’ ‘침묵’ 등에 출연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한류스타로 입지를 다졌다.

최태준은 2001년 드라마 ‘피아노’로 데뷔해 ‘옥중화’, ‘미생나인’, ‘수상한 파트너’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차승원, ‘화유기’ 끝나자마자 ‘영화 모드’

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 리’ 4월 촬영
차승원 ‘탄탄한 시나리오 보고 출연’

배우 차승원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최근 드라마를 끝냈지만 휴식 없이 차기작을 선택해 카메라 앞에 나선다.

4일 중영한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화유기’의 주연으로 다채로운 색깔의 매력을 드러내 호평 받은 차승원은 4월 새로운 무대로 향한다. 2016년 687만여명의 관객을 모은 흥행작 ‘력기’의 이계벽 감독의 신작인 ‘힘을 내요 미스터 리’(가제, 제작 용필름)다.

차승원의 선택이 더욱 눈길을 모으는 것은 ‘힘을 내요 미스터 리’가 휴먼코미디 장르인 때문이기도 하다. 지능이 낮아진 아빠 역을 연기하며 아픈 딸에 대한 진한 부성애를 드러내는 사이, 코믹한 캐릭터와 설정 등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임무가 그에게 주어졌다.

이에 따라 차승원은 ‘화유기’와 ‘최고의 사랑’ 등 드라마 최근작에서 드러낸 분위기에서



차승원

한 발 더 나아가 본격적인 코믹 연기를 펼쳐낼 전망이다. 차승원은 이미 ‘신라의 달밤’ ‘광복절특사’ ‘선생 김봉두’ 등 코미디 영화로 자신만의 또 다른 영역을 구축한 바 있다. 여기에 ‘력기’로 코믹 감각을 발휘한 이계벽 감독의 재능이 더해지면서 오랜만에 차승원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차승원은 스포츠동아와 나는 전화통화에서 “이계벽 감독의 탄탄한 시나리오만을 보고 출연을 결정했다”면서 “나 역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차승원은 또 ‘힘을 내요 미스터 리’ 촬영에 앞서 이미 작업해놓은 신작 ‘독전’의 6월 개봉을 예정하며 후시늉을 등 후반작업 중이다. ‘화유기’의 여독이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쉬지 않은 채 바쁜 일상을 보내며 새로운 봄을 맞고 있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감동, 다시 한 번” 거미, 3년만에 소극장 공연

5월 이화여대 삼성홀서 3회 걸쳐 진행
매번 새로운 레퍼토리 ‘명품공연’ 기대

‘발라드 여왕’ 거미가 ‘공연형 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뛰어난 라이브 실력, 그를 인정하는 관객이 없으면 매년 전국을 돌며 관객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여성 솔로가수가 방송이 아닌 공연 위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것도 흔치않은 일이라 시선을 끈다.

2016년부터 전국투어를 시작한 거미는 5월 부터는 소극장 공연에 나선다. 구체적인 날짜는 현재 조율중이고 서울 대현동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3회 공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소극장 공연은 2015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거미는 같은 장소에서 2회 공연을 열고 전석 매진시키며 ‘명품 공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3년 만에 다시 소극장으로 돌아오는 거미는



거미

팬들과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며 관객들에게 “음악의 감동과 울림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거미는 매 공연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새로운 레퍼토리를 추가해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만드는데도 성공했다. 관객 가운데 80% 이상이 거미의 공연을 처음 찾는 관객이라는 점도 ‘공연형 가수’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거미는 관객들이 지루해할 틈도 없이 무대에 오른다. 자신의 단독 콘서트와 함께 연말연시에는 환희, 휘성, 포맨 등 동료가수들과 합동공연으로 색다른 즐거움을 안긴다. 이달 14일과 17일, 4월7일에는 홍대광, 노을과 함께 봄을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현장.jpg

영화 ‘치인트’ 오연서-박해진 “드라마와는 다른 재미”



연기자 박해진(오른쪽)과 오연서가 캠퍼스 커플로 만났다. 웹툰과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치즈인더트랩’이 이번엔 영화로 제작됐다. 7일 오후 서울 용산CGV에서 열린 시사회에서 두 주인공이 다양한 포즈를 취하면서 영화의 분위기를 드러냈다. 박해진에게는 상업영화 첫 주연작이다. 드라마에 이어 영화 주인공으로 다시 나선 그는 제작에도 참여했다.

김진현 기자 kwangshin@donga.com